

페리의 지표성

김 한 승 (서울대)

【요약문】 지표성은 두 가지 다른 철학적 관심에서 연구되어왔다. 하나는 지표어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지시하는 바를 지시하는가를 이해하는 의미론적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지표어가 인식체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행위 이론적 관심이다. 페리가 여러 문헌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왔던 문제는 이 두 가지 철학적 관심을 모두 만족시키는 통일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두 관심사가 서로 구별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왜 하나의 이론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변도 제시되지 않았다. 지표성 문제에 대한 페리의 해결책은 의미론적인 것이고, 그는 이를 통해 행위이론의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의미론적 해결책은 여러 가지로 변화되어 왔지만, 필자는 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페리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근원은, 필자가 '의미론적 토대주의'라고 부르는 입장을 페리가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표성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의미론적 토대주의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제안이다.

【주제어】 지표성, 범례재귀성, 위치부여적 믿음, 의미론적 토대주의

지표성(indexicality)이란 개념은 두 가지 구별되는 철학적 관심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다. 하나는 지표어(indexicals)가 그 지시되는 대상을 지시하는 방식에 관한 언어철학적 관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시어 또는 지시적 믿음(indexical beliefs)이 우리의 인식적 체계에서 담당하는 특별한 역할에 관한 철학적 관심이다. 존 페리(John Perry)는 여러 논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철학적 관심을 모두 만족시키는 통일된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 가지 관심이 서로 구별된다는 점에 대해서 페리가 충분한 주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왜 이 두 가지 구별되는 관심거리가 하나의 이론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증 역시 페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이 글에서 나는 지표성에 대한 페리의 설명이 여러 형태로 진화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지표성이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1. 두 가지 길로 지표성이라는 철학적 관심거리에 도달하기

지표성에 대한 첫 번째 관심, 즉 언어철학적 관심이 생겨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나', '여기', '지금'과 같은 지표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프레게 의미론에서 언어적 존재자가 갖는 프레게의미(Fregean Sense)는 그것이 지시하는 바(referent)를 지시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이 방식을 매개하여 언어적 존재자는 그것이 지시하는 바를 지시한다. 이런 생각에 따르면 '나'라는 지표어 역시 프레게의미를 매개하여 그 지시하는 바를 지시한다. 하지만, 흔히 '새로운 의미론'이라고 불리는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프레게의미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다. 크립키에 의하자면 고유명사는 프레게의미의 매개없이 개별자를 지시한다. 즉 고유명사는 어떤 대상을, 그 대상이 존재하는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지시한다는 의미에서 고정지시어(rigid designator)이다 (Kripke: 48). 캐플란은 이런 의미론적 특성을 '직접적 지시성(direct reference)'라고 부르면서, 지표어 역시 직접적 지시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지표어를 포함하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대상들 자체로 구성되지 그 대상들이 제시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유변항을 포함하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는 말한다 (Kaplan: 484). 이 경우 우리는 번역에 있는 개체를 그 값으로 대입하지 그 개체가 만족시켜야 할 조건들을 대입하지 않는다. 지표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표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개체 이상의 무엇이 요구되지 않는다. "오늘 나 몸이 좀 좋지 않아"라는 말을,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들었다면, '나'라는 표현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을 한 사람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기술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이 표현하는 명제를 이해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를 수 있다. 예컨대, 오늘 치과에 가기로 예약을 해 놓고 새까맣게 까먹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안다고 할 수 있다. 즉 오늘은 바로 옆에서 어떤 이가 "오늘 나 몸이 좀 좋지 않아"는 말

을 들은 바로 그 날이다. 캐플란이 하고자 하는 주장은, 지표어는 어떤 개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명제를 해석해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지표성에 관한 두 번째 관심은 심리학적, 행위이론적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페리는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어떤 믿음들, 특히 행위로 이어지는 믿음들은 오직 지표적 방식으로만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강하게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예를 보자. 여기 '하이킹 입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다. 이 책은 텔렉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산의 지형에 대해 꽤 익숙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산에서 길을 잃었다.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지식이 잘못되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 위에서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그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런 결심을 실행에 옮긴 그의 행위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그의 믿음에 의거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인데, 그는 지금 이런 자신의 믿음이 과연 참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페리는 이런 종류의 믿음을 '위치부여적 믿음(locating beliefs)'이라고 하면서, 위치부여적 믿음은 본질적으로 지표적(essentially indexical)인데, 그 이유는 "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한다면 설명력이 상실될 것이거나 적어도 다른 어떤 전제들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Perry 1979: 4).

2. 지표성의 두 측면: 왜 구별되는가?

지표어가 직접지시적이라는 주장은 지표어가 지시에 성공하는 방식에 관한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언어적 존재자와 세계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특질이다. 반면에 위치부여적 믿음이 본질적으로 지표적이라는 주장은, 행위자에게 믿음을 귀속시켜서 그의 행위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제시하는 방식에 관한 주장이다. 넓게 보자면 이는 믿음과 욕구, 그리고 행위를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경우는 지표성 자체가 설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인간 행위의 심리학적 특징을 설명하는데 지표성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 주장이 어떻게 다른 주장에 도움을 주는지는 적어도 자

‘명하지 않다. 이 두 주장은 - 적어도 표면적으로나마 - 다른 두 물음에 관한 것이며 다른 맥락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주장은 지표성의 다른 측면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의미론적 측면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지표어는 직접지시적이라는 주장으로 돌아와 보자. 문제는, 어떤 것에 의해서 (in virtue of what) 지표어가 직접지시적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고유명사에 관한 크립키의 주장을 다시 생각해보자. 그에 의하면 고유명사는, 그 고유명사를 부여한 사람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연쇄적인 의사소통에 의해서 직접지시적이 된다 (Kripke: 91). 다시 말해서, 고유명사를 부여한 사람과 그 고유명사를 부여받는 대상 사이에 어떤 접촉 (예컨대, 그 대상이 그 사람 앞에 놓여 있어서 그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식의 접촉)이 우선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 후 사람들이 그 고유명사를 듣고 이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크립키가 강조하는 것은,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이름이 한번 주어지고 난 후에는, 그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기술은 이름이 지시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순이’의 인생이 매우 불행하다고 해서 ‘복순이’가 더 이상 복순이를 지시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표어는 어떤가? 무엇이 지표어를 직접지시적으로 만드는가?

널리 퍼져있는 생각에 따르면, 지표성은 문맥의존성(context-sensitivity)이다. 지표성이 무엇을 지시하는가는 문맥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으로 많은 것이 명료해진 것 같지는 않다. 문맥이란 개념 역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이헨바하는 문맥의존성을 범례재귀성(token-reflexivity)으로 설명한다 (Reichenbach: 284). 지표적 표현의 지시체를 결정하는 규칙은 그 표현의 발생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컨대 ‘나’라는 표현의 범례가 지시하는 바는 바로 그 범례를 발언한 사람이다. 이 범례재귀성이란 개념을 통해서 지표어가 왜 직접 지시적인지를 설명하려고 할 수도 있다. 지표적 표현이 어떻게 지시에 성공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발언자나 청취자가 가지고 있는 지시체에 대한 생각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지시관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발언했는가와 같은 외재적 요소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으로도 지표성이 갖는 의미론적 측면이 명료해진 것 같지는 않다. 우선, 범례재귀성은 우리가 흔히 지표어라고 분류하는 표현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광범위한 현상처럼 보인다. 예컨대 이름표 위에 적혀진 '김한승'이라는 범례가 지시하는 바는 바로 그 범례를 착용하여야 할 사람이다. 또 시계 위에 나타나는 "1:00PM"이라는 범례가 지시하는 바는 그 범례가 존재하는 시각이다. 지도와 도로표지, 책표지에 있는 제목 등의 여러 범례에 관련해서도 그 범례와의 관계를 통해 지시체를 결정하는 규칙을 생각해 낼 수 있다. 나아가 범례라는 개념을 조금 넓힌다면, 범례재귀성을 언어적 현상에만 국한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앞에 놓인 물병에 의해서 생겨난 시각적 범례는 바로 그 범례를 인과적으로 발생시킨 물병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범례재귀성이 지표어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다. 지표성이 지표어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은 오히려 중요한 관찰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지표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론적 특성이 범례재귀성으로 설명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모임에 참석할 사람들을 위해 이름표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름표와 참석할 사람들 사이에 범례재귀적 규칙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름표에 나타난 이름은 그 이름표를 달 사람을 지시한다는 규칙이다. 하지만 이 규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급히 서두르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이름표를 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불참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참석한 사람이 불참한 사람의 이름표를 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때문에 범례재귀적 규칙이 애초부터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이 범례재귀적 규칙은 예외를 허용한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지표어의 경우 그런 예외를 생각할 수 없어 보인다. '나'라는 지표어를 어떤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서 나를 지시할 수는 없다. 물론 직접인용문을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라는 지표어를 사용해서 나를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이름표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직접인용문에 해당하는 장치는 없어 보인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에 착안해서, 지표적이라서 범례재귀적인 기호와 비지표적이지만 범례재귀적인 기호간의 차이를 규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표어가 갖는 의미론적 특성을 규정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 즉 이름표

나 시계, 도로표지등은 오류가능성이 허용되는 범례재귀적 기호들인 반면, 지표어는 오류가능성이 허용되지 않는 범례재귀적 기호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표어는 그 지시체를 지시하는 데 실패할 수가 없다. 바로 이 특별한 종류의 범례재귀성이 바로 지표성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답하여야 할 것은 왜 지표어는 오류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지표적이고 범례재귀적이지만 고정지시어처럼 행동하는 기호 역시 가능해 보인다 (Nozick: 75). 예를 들어 어떤 화가가 작품을 완성하고 캔버스 위에다 'X100'라는 범례를 그 제목으로 적어 넣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이 범례는 그것이 적혀 있는 그림을 지시한다는 범례재귀적 규칙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범례는 비지표적이지만 오류가능성을 허용하지도 않는 것 같다. 누군가 'X100'는 사실 그 그림을 지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매우 이상한 주장이 될 것이다. 화가가 사실 순번에 의해 제목을 붙여오고 있었고, 실수로 99번째 작품에다가 'X100'라는 제목을 써 넣는다고 해도, 여전히 그 작품은 'X99'가 아니라 'X100'이라는 제목을 갖게 된다.

지금껏 지표성이 갖는 의미론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강조해야 할 점은 지금 필자가 지표성의 의미론적 측면에 관한 완전하고 비순환적인 설명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논지의 요점은 이렇다: 직접지시성과 범례재귀성은 지표성이 갖는 의미론적 측면을 조명하고자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지표어는 직접지시적이라는 주장은 발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오히려 무시하라는 제안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표어의 지시를 결정하는데 발화자가 무엇을 지시하고 하려는 의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표성이 갖는 두 번째 측면은 이와는 다르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세계 내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위치해 있느냐에 대한 행위자의 의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성의 측면을 이해하는데 발화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고려는 적절하다. 이런 차이를 생각할 때 이런 두 측면을 같은 지평에서 다루어야 하는 지는 적어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각 측면을 서로와는 무관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을까?

3. 두 길이 맞는 법: 페리 (1)

그럼에도 지표성이 중요하게 되는 이 두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대강 말해서 그 이유는, 언어 게임이란 세계와 언어 사용자의 정신적 상태 모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태를 기술하는 것 뿐 아니라 정신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언어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 성공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 보다 더 적절한 언어 게임을 한다면, 세계와 정신상태에 대해서 보다 나은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언어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근본적 이유이고, 지표성의 두 측면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어떻게 이 두 측면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한 만족스런 이론을 위해서 페리의 설명을 검토해보자.

페리는 지표성에 관한 두 철학적 주장을 통일하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페리 자신이 이 두 주장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통일 이론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확실하지 않고, 필자의 생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보인다. 그런 진단의 한 근거는, 페리가 자신의 이론을 구성하게 된 동기가 주로 프레게 의미론에서 제기되는 의미론적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프레게는 의미론과 정신적인 것을 함께 고려하는 진통의 대표자라 할 수 있다. 지표어가 직접지시적이라는 주장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프레게 문제, 즉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두 표현이 어떻게 인식적 중요성(cognitive significance)에서 다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지표어가 가진 유일한 의미론적 역할이 어떤 개별자를 제시하는 것이라면,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두 표현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프레게가 제시한 유명한 해결은 지시체와는 다른 또 하나의 의미론적 층위, 즉 프레게의미 또는 제시의 양상(mode of presentation)을 상정하는 것이다.

프레게 문제가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식적 중요성이 의미론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전제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캐플란과 페리 역시 인식적인 것이 의미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들이 프레게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인식적 중요성이 지시체를 결정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프레게에 있어서 모든 의미론적 대상은 지시에 공헌하는 바가 있어

야 한다 (Evans: 76-77). 반면 직접지시이론은 지시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식적인 것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서 캐플란과 페리는 프레게의 의미론을 비판한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는 지표적이고 다른 하나는 비지표적이면서 동일한 것을 지시하는 두 표현이 상이한 인식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인식적 중요성이 의미론적 문제라는 데 동의했으므로, 이 두 표현에 대해 상이한 의미론적 속성을 부여해야 한다. 예컨대 '김한승'과 '나'라는 표현은 상이한 인식적 태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표적 표현의 프레게의 미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다. 지표어는 문맥에 따라 다른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에, 지표어의 프레게의미는 문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함축된다. 하지만 캐플란과 페리에 따르면, 지표적 표현은 그 사용 문맥과는 별도로 고정된 의미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 (Perry 1977: 54-56).

프레게의미와는 동일시될 수 없는, 지표어가 가진 이 고정된 의미론적 성격을 캐플란은 '성격(character)', 페리는 '역할(role)'이라고 부른다. 물론 지표적 표현만이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지표적이든 아니든, 한 표현의 성격은, 그 내용(content)을 말해주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주어진 문맥에서 '나'라는 표현과 '너'라는 표현은 같은 사람을 지시할 수 있고, 따라서 동일한 내용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내용을 결정하는 규칙, 즉 '나'와 '너'의 성격은 여전히 다르다.

다음으로 설명될 것은 성격 또는 역할이 갖는 의미론적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프레게와는 달리 캐플란과 페리에게 의미론적 기능은 반드시 지시체를 고정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페리에 따르면,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페리의 믿음은 "누군가 페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그의 믿음과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 페리는 자신을 자기의식적으로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데 반해서, 후자는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와 같은 믿음은 페리가 말하는 위치 부여적 믿음에 속한다. 페리는 이런 위치부여적 믿음이 특별한 인식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 인식적 중요성이 의미론적 문제라는 것에 페리는 동의하기 때문에, 위치부여적 믿음은 그렇지 못한 믿음과 의미

론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페리에 따르면 위치부여적 믿음은 본질적으로 지표적이다. 결국 위치부여적 믿음의 의미론적 특질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지표어의 의미론적 특질이 무엇이나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지표적 표현의 성격 또는 역할은 문맥에 따라 다른 내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위치부여적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간의 인식적 차이는 지표적 표현의 성격과 비지표적 표현의 성격의 차이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해 보자. 지표어의 성격 또는 역할은 두 가지 의미론적 기능을 갖고 있다. 우선, 문맥이 결정되면 내용을 제시한다. 이 경우 지표어가 지시하는 방식은 위에서 설명한 의미에서 직접 지시적이다. 문맥을 결정하는데 의미론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프레제의미 또는 제시의 양상이 아니라 개별자이다. 다른 한편으로, 문맥과 분리하여 보았을 때, 지표어의 성격은 정신적 상태의 인식적 중요성을 특징짓는다. 그런 점에서 인식적 중요성은 지시체를 결정하는 일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인식적 중요성이 기여하는 일은 심리적 상태를 구분짓고 행위를 예측하는 것이다. 페리와 캐플란은 지표어가 이러한 두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지표성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상호 연결되는 통합이론을 제시한 셈이다. 필자는 이를 페리-캐플란 견해 (약자로 PK)라고 부르겠다. 앞으로 보겠지만 페리의 이후 생각은 PK로부터 진화되어 나간다.

4. 인식적 중요성으로서의 성격?

이상에서 보듯 '성격'이란 개념은 PK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개념이 과연 명료하고 통찰력있는 개념인가?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은 성격이 인식적 중요성을 규정하는 충분한 조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격에 대한 캐플란과 페리의 설명을 각각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캐플란을 보자.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사고(또는 명제)의 인식적 중요성이 바로 성격이다" (Kaplan: 530). 이에 의하라면, 어떤 이가 믿는 명제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심리적 상태를 규정한

다. 예컨대 어떤 이가 “내 바지에 불이 붙었다”고 믿는 경우와 “저 사람 바지에 불이 붙었다”고 믿는 경우, 같은 사람의 같은 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다른 심리적 상태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 이유는 이 두 명제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aplan: 533). 하지만 명제가 가진 성격만으로부터 심리적 상태를 예측할 수 있을까? “저...는(은) 저...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구성요소가 빈 칸을 채운다면, 이 명제는 (동어반복적 명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외의) 인식적 중요성을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철도역 근처의 찻집에 앉아서 두 창문을 통해 기차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두 창문 사이의 일정한 간격 때문에 그는 한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기차와 다른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기차가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면서, “저 기차가 저 기차인지 궁금하다”라고 말한다. (Wettstein: 119에서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반면에 그 사람이 찻집을 나와 분명히 그 기차를 보고난 후에는 “저 기차는 저 기차이다”라는 명제는 아무런 인식적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명제의 성격만으로 인식적 중요성을 규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약간 변형된 다른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입장은 명제의 구문론적 구조와 성격만으로는 인식적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충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 변형된 입장을 따르자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위치부여적 믿음이 본질적으로 지표적이라는 패리의 주장은, 어떤 행위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가능한 가장 나은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지표적 표현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듯 가능한 가장 나은 설명을 제시했을 때 비로소 그 명제가 갖는 성격이 심리적 상태를 규정하고 인식적 중요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믿음을 귀속할 때, 귀속된 믿음의 상태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반례에서 우리는 이미 이 예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믿는 명제(“저 기차가 저 기차이다”라는 명제)가 사소하지 않다(즉 인식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저 기차가 저 기차이다”는 명제는 그 사람이 당시에 믿고 있던 바에

대한 가능한 가장 나은 기술 방식이 아니다. 적어도 “저 기차”라는 표현을 보다 자세한 기술구로 바꾸어야 한다. 이 입장이 PK와 다른 점은, 명제가 가진 인식적 중요성이 그 명제의 성격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만, 무조건적으로 동일시될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명제가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인식될 때, 그 차이는 그 성격에 의해 설명될 수 있지만, 성격 그 자체가 인식적 중요성을 구별짓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변형된 입장에서 상정하는 ‘성격’이라는 개념은 과연 이제 문제없는 것일까? 페리(1977: 1979)가 캐플란의 생각을 흥미롭게 생각한 이유는 성격이 두 가지 구별되는 의미론적 역할, 즉 지시체를 고정하고 심리적 상태를 규정짓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중적 역할을 하는 성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표성이 중요시되는 두 가지 방식을 연결하고자 한 것이다. 심리적 상태가 그 문맥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잘못된 믿음이 우리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경우는 흔하다. 만일 오늘이 크리스마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참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 믿음을 하는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을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그럴 듯한 생각을 어떻게 일관되게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페리의 유명한 예를 생각해 보자. 대형할인매장에서 페리는 자기 수레에서 설탕이 새어나오는 줄 모르고, 설탕을 흘리고 있는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을 깨닫는다 (Perry 1979: 3). 이 깨달는 순간 페리가 믿고 있는 명제에 관해서 가능한 가장 나은 설명을 했다고 하고, 그 명제의 성격을 ‘Pa’라고 부르자. 이 Pa는 아마도 ‘내가 바닥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명제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페리를 따르자면, 이는 본질적으로 지표적이다. 이제 이 명제에 나타나는 지표어를 외연이 같은 비지표적 기술로 대체하여 얻은 명제의 성격을 ‘Pb’라고 하자. 이제 Pa에 의해 규정되는 믿음 상태가 Pb에 의해 규정되는 믿음 상태와 다른 이유는 Pa와 Pb가 의미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Pa(그리고 Pb)를 얻게 된 것은 상황에 대한 가능한 가장 나은 설명을 한 다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페리의 경우와 같은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적어도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성은 행위

자와 그가 처한 정황간의 전반적 관계가 고려될 때에만 상정될 수 있다.

아마도 퍼트남의 쌍둥이 지구 논변과 같은 사고 실험이 (퍼트남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지만) 합리성이란 “머릿속에 있는 것”(Fodor: 2장)이라는 생각을 그럴 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 같다. 내가 속해 있는 세계는, 그것이 지구이든지 쌍둥이 지구이든지, “머릿속에” 있지는 않고,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없지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맥은 심리상태를 규정짓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그럴 듯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합리성이 드러나는 방식은 (행위자가 처한)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이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이 사람 역시 대형할인매장에서 페리처럼 설탕봉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환각상태이다. 즉,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이 바닥을 더럽히고 있다고 믿는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그에게 Pa와 같은 성격을 가진 명제를 그의 믿음의 대상으로 귀속시켜야 할까? 필자가 보기에 Pa가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가능한 한 가장 나은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의 경우에는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의 경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의 인식적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이제 그의 심리상태가 Pa로 기술되어야 할지 Pb로 기술되어야 할지 하는 문제를 정한다고 해서 애초의 설명이 향상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할인매장에 있는 페리의 경우처럼) 일정기간 동안 드러난 어떤 사람의 믿음의 구조와 행위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면, 지표적 표현으로만 표현되는 성격을 가진 명제로 그의 믿음을 규정짓는 것이 더 나은 설명이라고 보기 힘든 것 같다. 물론 지표적 설명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는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만 표현되는 (심리적 상태에 관한) 다른 어떤 사실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더 나은 설명인 것은 아니다.

성격이라는 개념에는 묘한 방식으로 순환적인 데가 있다. (캐플란에 의하면) 성격이란 문맥에서 내용으로의 함수이고, 어떤 표현의 언어적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표현의 성격을 안다는 것은 주어진 문맥에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지구에서 ‘물’은 H₂O를 지시하고 쌍둥이지구에서 ‘물’은 XYZ를 지시하는 것을 안다면 (어느 한 곳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처해진 곳에서 그 곳에서 '물'이라는 표현이 지시하는 것을 안다면), 이 표현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문맥들이 ('물'이라는 표현의 성격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문맥이고 어떤 문맥들은 부적절한 문맥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물'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데 순환성이 숨어있다. 모든 'mul'이라는 물리적 소리가 물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물'이라고 불리는 고양이가 있다면, 이 고양이를 부르는 문맥은 우리가 원하는 '물'이라는 표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아야 한다 (Stalnaker:231-232). 순환성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로 인해 어떤 표현의 성격을 앞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심리적 상태의 내용을 이해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성격이라는 개념은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어떤 중요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페리가 보기에, 두 사람이 각각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라고 주장한다면 (비록 다른 주장이긴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공통된 점이 있다. 바로 이 공통된 점이 공통된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고, 공통된 행위 유형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통된 점은 사실 너무나 흔하게 찾아질 수 있다. 철수는 만수보다 가볍지만, 그와 같은 깃수의 턱걸이를 할 수 있다. 철수가 마시는 물병은 작고, 만수가 마시는 물병은 크지만, 모두 물병에 든 물을 마시고 있다. 이런 공통점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5. 재귀적 지시이론: 페리 (2)

하지만 성격을 단순히 인식적 중요성으로 보는 것이 (캐플란의 입장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지만) 페리의 입장이기도 하다는 것은 그에게 정당하지 않는 해석일 수 있다. 어느 곳에서 페리는 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페리/캐플란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강한 형태와 약한 형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강한 형태는 단순히 인식

적 중요성이 바로 성격(역할 또는 의미)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강한 형태를 고수하지 않는다. 내 생각에 나는 이 견해를 한번도 지지한 적이 없다. (중략) 약한 형태는 캐플란의 성격/내용의 구분이 인식적 중요성에 관한 문제를 푸는데 매우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를 주장했고, 지금도 그렇다 (Perry 1988: 245-246).

이 약한 형태의 입장은 발생된 명제(proposition created)와 표현된 명제(proposition expressed)라는 페리의 구분에 근거한다. “나는 내일 돌아옵니다”라는 쪽지가 문에 붙어있는데, 누가 언제 이 쪽지를 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자.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쪽지로부터 무엇인가를 이해한다. 다시 말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글을 쓴 다음 날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한다. 이 쪽지를 캐플란이 1998년 7월 1일 썼다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진리조건문을 갖게 된다.

(T1)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를 쓴 다음날 돌아오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이 글은 참이다.

(T2) 캐플란이 1998년 7월 2일 돌아오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이 글은 참이다.

이 경우 (T1)은 발생된 명제(“이 글을 쓴 사람이 이를 쓴 다음날 돌아온다”)를, (T2)는 표현된 명제(“캐플란이 1998년 7월 2일 돌아온다”)를 각각 나타낸다. 이를 통해 페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점은 이런 것 같다. 우선, 발생된 명제와 표현된 명제 모두 단칭명제(singular proposition)이다. 발생된 명제는 발화나 글씨에 관한 것이고 표현된 명제는 개별자에 관한 것이다. 모두 단칭명제이지만 차이도 있다. (T1)의 발생된 명제는 범례재귀적 지시 내용(token-reflexive-referential content)을 갖지만 (T2)의 표현된 명제는 그렇지 않다. 또한 그 정보 내용(informational content)에서도 차이가 있다. (T2)의 표현된 명제는 캐플란이 그 쪽지를 썼다는 사실에 의해 그 내용이 증가된다는 의미에서, 페리는 이를 ‘증가적 정보 내용 (incremental informational content)’이라고 부르거나 (Perry 1990: 287-289), 의사

소통을 하는 표준적인 목표가 된다는 의미에서 “공식적 내용(official content)”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점은 다른 종류의 내용이 두 명제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발화에 하나의 내용이 결합된다는 생각을 페리는 오류라고 보고,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하나의 발화가 재귀적 지시 명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단칭명제를 표현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비판적 지시이론가(critical referentialist)’라고 규정한다 (Perry 1997a: 606).

다음으로 페리가 고려하는 것은 성격 또는 언어적 의미가 인식적 중요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웨트스타인류의 주장이다. 페리의 대답은 발화에 의해 발생한 명제 또는 내용은 인식론적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8년 7월 1일 오후 4시 북위 36도 서경 60도에 별뿔별이 떨어진다”는 뉴스를 접하고도 어떤 이는 꿈쩍하고 있지 않다가 “별뿔별이 바로 지금 여기에 떨어진다”는 이웃의 소리에 부리나케 차를 타고 대피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 닥칠 수 있는 재앙을 깨닫게 하고 대피하게 만든 것은 이웃사람이 한 발화가 가지고 있는 범례재귀적 지시 내용, 즉 바로 그 발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별뿔별이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인식적 중요성은 바로 이 내용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Perry 1988: 237). 범례재귀성은 지표적 표현의 본질적인 특질이라고 생각되어왔고, 이제 심리적 상태와 행위를 설명하는 것도 보였다. 재귀적 지시이론(reflexive-referential theory)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이론을 통해서, 지표성이 중요하게 되는 두 가지 길이 다시 서로 문제없이 만나는 것 같다.

웨트스타인이 제기한 반례도 이제 이 이론의 틀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 같다. “저 기차가 저 기차이다”라고 의미있게 말하는 경우, 이 발화에 의해 발생한 내용은 인식적 중요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발생한 명제는 단칭명제이기에, ‘저’라는 표현의 두 범례가 발생한 시간상의 차이만 있다면, 이 발화가 지니는 인식적 중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격과는 달리, 이 단칭명제는 ‘머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적 소리 또는 글씨에 관한 것이다. 이 이론은 하나의 유형에 속하는 두 발화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있다. 두 발화가 이루어진 만큼, 발생한 명제는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Wettstein: 119; Perry 1988: 239-240).

6. 인식적 중요성으로서의 재귀적 지시 내용?

재귀적 지시이론의 장점은 지표어가 직접적으로 지시적이라는 직접지시이론의 기본 입장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도 반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 재귀적 지시 내용은 발화를 그 내용의 구성요소로 가진다는 점에서 단정적이다. 이 재귀적 지시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발화의 문맥을 이용해야 한다. 사실 문맥은 두 번, 즉 재귀적 지시 내용을 결정하는데 한번, 그리고 공식적 내용을 결정하는데 또 한번, 이용된다. 재귀적 지시 내용이 바로 인식적 중요성과 관련을 맺기 때문에, 심리적 태도와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문맥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문맥에 대한 고려 없이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인식적 중요성이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심리적 상태를 규정하기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 발화의 문맥을 이용해야 하느냐에 관해서 애매한 점이 있다. 오직 발화와 관련된 사실만을 고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이상을 고려해야만 하는가? 재귀적 지시이론에서 발화에 관한 문맥은 누가 어디서 언제 그 발화를 했는가와 같은 단순한 발화 문맥을 나타내는 것 같다. 만일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례를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이 반례를 제시한 것은 페리 자신이다. 컴퓨터공학자인 데이빗 이스라엘이 강연을 하고 있고, 청중 중에 앉아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다른 초청연사가 데이빗과 말을 하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제 데이빗이 (1) ["나는 컴퓨터공학자입니다"]라고 말을 한 그 강연장이 너무 험하니 넓어서 사람들이 종종 누구의 말소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소리 울림이 심하게 일어난다고 가정해보자. 데이빗이 (1)을 말하고 초청연사가 이를 들은 뒤 몇 초 후에, 이 초청연사가 "나는 컴퓨터공학자입니다"라는 메아리를 들었다. 처음 들었을 때에는, (1)을 (대략)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한 발화'라고 여겼고, 다음으로 메아리를 들었을 때는, '들고 있긴 하지만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발화'라고 여겼다 (Perry 1997b: 7-8).

이 반례는 직접지시이론에 대한 오래된 비판의 재판(再版)이다. 재귀적 지시 내용이 단칭명제라면, 하나의 사물(이 경우 발화)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프레게 문제에 부딪힌다. 하지만 페리는 이런 반례를 제시한 뒤 바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다. 그의 대답은, 이 경우 한 발화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다른 재귀적 지시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C1) (i) (1)을 말한 강연자이고 (ii) 컴퓨터공학자인, 그런 x 가 있다.

(C2) (i) (1)을 말한 사람이고 (ii) 컴퓨터 공학자인, 그런 x 가 있다.

이 둘의 차이는, (C1)의 내용은 그 초정연사가 누구의 발화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C2)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 해결책이 시사하는 바는, 오직 발화에만 관련된 사실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문맥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발화이외의 사실을 이용해야 한다면, 발화의 의미론적 특질이 인식적 중요성을 특징짓는다는 주장이 훼손된다. 페리는 (C1)과 (C2)가 왜 의미론적으로 다른지, 또는 이 둘을 어떻게 의미론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C1)과 (C2)를 구별하는 이유가 의미론 밖에서 찾아진다면, 인식적 중요성이 의미론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목표는 성취되지 못한 것 같다.

재귀적 지시 이론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 이론은 심리적 상태를 발화에 근거해서 규정한다. 하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발화에 주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런 이유로 어떤 의미론적 상태를 발화와의 관계에 근거해서 규정한다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7. 의미론적인 것은 인식적인 것과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가?

하지만 어쩌면 페리의 주장을 정당하게 읽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한 걸음 물러나 전체적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자. 페리는 위치부여적 믿음이 본질적으로 지표적이고 명백하게 인식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표어의 의미론적 특질이 인식적 중요성의 근거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프레게 의미론은 지표어의 의미론적 특질과 그 특별한 인식적 중요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의 이론이 모든 세부적 심리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고 페리가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다. 심리적 상태와 그에 해당하는 의미론적 재현 사이에 일대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가 안전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이론이 다른 의미론, 특히 프레게 의미론보다 낫다는 점이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약간 장황하지만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의미론자 또는 언어철학자가 심리철학 또는 인지과학의 모든 짐을 다 질 필요는 없다. 색에 관한 지각의 문제와 비교해보자. 우리가 색깔로 물체를 구별할 때, 물체의 어떤 물리적 속성에 반응하는가는 명료하지 않다. 아마도 그 속성이란 물체에 닿는 빛의 파장과 빛의 흡수률간의 관계가 될 것이다. 색상이 일정한 만큼이나 이 빛의 속성 역시 일정할 것이다. 이 속성을 색상을 구별할 수 있는 동물의 시각체계와 인식체계에 미치는 특정한 효과로 생겨나는, 물체의 물리적 속성이다. 만일 빛의 물리적 속성과 물질의 반사적 속성에 관해 연구하는 물리학자가 이 속성을 규명하는 일이 자신의 일과는 상관없다고 한다면, 이는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된다. 색에 관한 시각 모두를 설명하는 일을 그들에게 떠맡기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물리학자라면 지각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 대상에 관한 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Perry 1988: 232).

이 유추를 페리의 입장에서 완결지어 보자면, “인식적 중요성 모두를 설명하는 일을 떠맡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의미론자라면 위치부여적 믿음이 갖는 인식적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지표어에 관한 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시지각의 물리적 구조를 기술하는 일과 주관적 시지각을 기술

하는 일은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이유는 후자가 전자에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물리학자가 할 일은 시지각을 이해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의 유추가 적절하다면) 의미론은 위치부여적 믿음이 갖는 인식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유추가 적절하기 위해서는 인식적인 것이 의미론적인 것에 체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 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8. (자기에 대한) 재현이 필요없는 생각

필자가 보기에, 페리는 대부분의 글에서 인식적인 것이 의미론적인 것에 체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나는 이런 생각을 '의미론적 토대주의 (Semantic Foundationalism)'라고 부르겠다. 위치부여적 믿음에 관한 여러 예를 통해서 페리는 이런 믿음이 갖는 특별한 인식적 중요성의 근거가 그 의미론적 구조라는 점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근거"라는 표현이 "인과적 근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적 근거"를 말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듯 의미론적 토대주의를 받아들이는 페리이지만, 이런 생각이 그 자신에게도 혼란스런 점이 있어 보인다. 그의 생각 중에는 의미론적 토대주의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Perry 1979에서 페리는 위치부여적 믿음이 지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Perry 1986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재현도 갖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앞에 놓여 있는 물컵을 집어 들려는 나는, 대개의 경우, 물컵을 마주보고 있는 자기자신을 의식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은, 물컵을 보고 잡는 것 뿐이다. 문제는 이 단순한 관찰이 의미론적 토대주의에서는 잘 설명될 수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페리가 받아들이는 의미론적 토대주의에 의하면, 나의 행동을 유발하는 나의 믿음에 대한 (가능한 가장 나은) 기술은, 나 자신과 나와 세계와의 관계에 관한 나의

믿음을 끌어들어야 한다. 예컨대, 나는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과 내 앞에 물컵이 있다는 것, 물컵은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 등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내가 물컵을 들어올릴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재현을 포함하는 믿음을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는 (내 내부에서 들리는) 나의 말이나 나 자신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의식하지 않는다. 나의 의식은 오히려 물컵을 직접 향하고 있다. 페리가 말하듯이, 기본적인 자기 지식은 본래적으로 자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Perry 1986: 205). 그렇다면 의미론적 토대주의는 옳은 입장이 아닌 것 같다. 페리는 이 의문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페리의 대답은, 이런 철학적 고찰이 재귀적 지시이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월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페리가 보기에, 문제를 보다 더 확대하자면, 우리가 설명해야 할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재현을 가지지 않고도 어떻게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제 이 문제를 언어적 상황에 적용해보자는 것이 페리의 한 제안이다. 일상 대화에서 우리는 문맥적으로 분명하다는 이유로 여러 변수들을 생략한다. 예컨대, “비가 온다”라고 할 때,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의 날씨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 경우, 페리의 용어를 빌리자면, 서울은 상술되지 않은 (unarticulated) 구성요소이다 (Perry 1986: 209). 서울이 구성요소인 이유는 공식적 내용이 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상술되지 않은 이유는 발화의 어떤 부분도 서울을 지칭하지 않기 때문이다. 페리가 보기에, 재현이 필요없는 생각과 상술되지 않는 구성요소간에는 강한 유추가 성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가 포함되지 않는 자기 지식이라는 개념도 설명될 수 있다. 더불어 의미론적 토대주의 역시 유지될 수 있다.

페리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그에 따르면, 우선 상술되지 않은 구성요소가 감추어져 있는 진술에 대응하는 믿음의 층위로 ‘일차적 믿음 (primary belief)’이 있는데, 이 일차적 믿음의 층위가 행위가 대한 직접적 근거이다 (Perry 1986: 218). 예를 들어, “저기 물컵이 있다”는 진술에 대응하는 믿음이나 나로 하여금 그 잔을 잡도록 한다. 일차적 믿음의 층위 위에 존재하는 것은, “물컵이 내 앞에 있다”와 같이, 상술되지 않은 구성요소가 지표적 방식으로 나타나는 진술에 대응하는 믿음의 층위이다. 가장 위의 층위

를 이루는 믿음은 “김한승 앞에 물컵이 있다”와 같이 특정한 관점을 요구하지 않는 종류의 믿음이다. 이런 삼중 구조의 믿음 중에서 위치부여적 믿음은 여전히 지표적으로 중간 층위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은, 위치부여적 믿음이 아니라 일차적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는 앞서의 견해(Perry 1979)로부터 변화된 것이다. 어쨌든 페리에 의하자면, 믿음의 구조와 이런 믿음을 구현하는 진술의 구조 간에는 대응 관계를 찾을 수 있고, 이 대응관계가 재현이 필요없는 생각이라는 퍼즐을 푸는데 핵심적이다. 하지만 과연 퍼즐은 풀렸는가? 퍼즐은, 어떻게 비지표적 또는 자기없는 ‘일차적’ 믿음이 나로 하여금 앞에 놓인 물컵을 집어 들도록 만드는가 하는 것이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지표적 믿음, 즉 “물컵이 있다”라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물컵을 들도록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페리는 일차적 믿음에 지표적 구성요소가 숨어있다고 대답하겠지만, 이 대답이 만족스럽지는 않다. 일차적 믿음에 지표적 구성요소가 숨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숨어있는 지표적 구성요소 때문에 일차적 믿음이 행위를 유발했다고 받아들일 이유를 페리는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본질적으로 지표적이라던 위치부여적 믿음에 귀속시킬 수 없다면, “물컵이 있다”는 (자기에 대한 재현이 없는) 일차적 믿음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물컵을 집도록 만들었을까? 페리가 이 질문이 퍼즐을 만든다고 여겼다면, 퍼즐은 풀리지 않은 채 여전히 남는다.

9. 지속적 믿음과 정신적 파일: 페리 (3)

필자가 보기에 퍼즐을 풀기 위한 올바른 선택은 의미론적 토대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페리가 쓴 두 편의 글에서 의미론적 토대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생각의 단초가 발견된다 (Perry 1980; 1989). 이 생각에 따르면, 인식적인 것에 대한 설명은 그 의미론적 속성만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없고, 인식적 중요성이 어떤 의미론적 속성과 단순하게 동일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심의 초점은 인식적 체계의 구조에 맞춰져 있다.

페리가 이러한 생각을 이론화하게 된 동기는 지속적 믿음(continued belief)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특정한 순간에 공을 차는 것과 같은 순간적 사건이 아니라, 어떤 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믿지 않게 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 믿음은 갖는다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전제한다. 하지만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믿는 것과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다. 무엇을 소유하는 것 역시 시간의 경과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지만,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믿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항상 '동일한 강도(強度)'로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이가 뉴질랜드는 호주보다 국토면적이 좁다고 지속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항상 그 믿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믿음을 '의식 속'에서 다른 때보다 '강렬한' 방식으로 떠올리게 된다. 반면에 어느 사람이 부동산이나 채권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소유관계가 어느 순간에 더 '강렬'해 지지는 않는다.

지속적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문서'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자. 저장된 문서는 어디엔가 저장되어 삭제되기 전까지는 존재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불러들여져 화면 상에 나타난다. 문서에 수정을 가한 경우, 엄밀한 구문론적 기준을 염두에 둘 때, 문서는 그 전의 문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 문서가 지속되는나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구문론적 변화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 믿음을 갖는 것은 이와 다르다. 어떤 경우 지속적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구문론적 변화가 요구되기도 하기 때문에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하자. "오늘 철수를 만났어. 새로 현대차를 샀다고 보여줬어. 흰색 쏘나타였는데, 뒷문에 굵힌 자국이 있더라." 이 사람이 이와 같은 그의 믿음을 그 다음날에도 누구에게 전달한다고 할 때는 이와 동일한 문장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어제..."라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뒷문에 페인트가 묻어서 철수의 차에 있는 굵힌 자국과 매우 흡사하게 보이는 새 흰색 쏘나타가 있어서 그가 이를 보았다고 하자. 그 차를 보고 철수의 차라고 생각한 그가 같이 있던 동료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차가 철수가 새로 산 쏘나타야. 뒷문에 굵힌 자국이 있지." 이 경우 그의 진술은 (그 차가 철수의 차도 아니고 굵힌 자국도 없기 때문에) 거짓이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철수

의 차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속적 믿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믿음을 보고하는 문장의 동일성이 지속적 믿음의 동일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문장의 진리값이 믿음의 동일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도 없다. 무엇이 지속적 믿음이나는 믿음은 믿음을 두 가지 방식, 즉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상태로 구별하는 페리에게 특히나 까다로워 보인다.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외재적 기준을 제시하고, 믿음의 상태는 내재적 기준을 제시하지만, 지속적 믿음은 그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페리가 이로부터 얻고자 하는 교찰은, 지속적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 또는 정보를 원상 그대로 유지하고자 해야 한다는 점이다 (Perry 1980: 81). 이를 위해서 때로는 믿음을 전하기 위한 문장을 바꿔야만 한다. 또한 정보를 원상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항상 의도했던 정보를 갖게 된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정보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외연적 개념이지만, 정보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함은 그렇지 않다 (Perry 1980: 80).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믿기 위해서 그것의 이름이나 그것만을 유일하게 지칭할 수 있는 기술구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지속적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인식 체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 부분에서 페리는 '정신적 파일(mental file)'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기 초에 자기 반 학생들의 기록을 파일에 보관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미 선생님은 학생들을 만나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모두 알아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보다 정교한 관리를 위해서 각 학생에게 적어도 하나의 파일을 배정한다. 이 경우 파일 위에 학생의 이름을 반드시 적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학생의 사진을 붙일 수도 있다. 선생님이 학생과 그 파일을 대응시키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한, 어떤 방법도 상관없다. 각 파일은 선생님이 그 학생에 관해 얻은 간략한 정보(예컨대, '심한 약사이다'와 같이 주어가 생략된 정보)를 담고 있다. 그 중 어떤 정보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떤 정보는 보충될 수도 있다. 주목할 것은 선생님이 파일 속에 있는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그것이 누구의 파일인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누구의 파일인지는 이미 파악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보는 모두 정확하지만 잘못된 파일에 속해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 들린다. 정보는 어떤 것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파일에 들어있다면 부정확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일에 있는 정보가 모두 정확하지만 누구의 파일인지 확정하기에 불충분할 수는 있다. 선생님이 한 학생에 관해서 (실수로) 두 파일을 관리하고 있을 경우 그럴 수 있다. 선생님이 이를 발견하면, 두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칠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한 반에 일관성 쌍둥이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한 아이로 보고 하나의 파일만을 준비한 경우 그럴 수 있다.

페리에 따르자면, 파일 합치기(file merging)가 동일성 진술이 갖는 인식적 중요성을 설명해 준다. 앞서 나왔던 "저 기차가 저 기차이다"와 같은 동일성 진술이 인식적으로 사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두 정신적 파일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파일 분리(file division)는 "저 기차는 저 기차가 아니다"와 같이 얼핏 보기에 모순적인 진술도 인식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Perry 1989: 260). 구문론적으로 동일한 것이 동일한 정신적 파일을 함축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 기차를 보느냐 하는 것이 동일한 기차에 대해서 두 개의 정신적 파일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Perry 1989에서 페리는 '파일'이라는 표현 대신에 '개념(no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에 의하면 정신적 파일 또는 개념은 구체적인 인식적 구조물이다. 또한 그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을 '관념(idea)'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관념 역시 구체적인 인식적 구조물이라고 한다. 일차양화논리로 표현하자면, 개념은 존재양화사에 구속된 변수로 나타나고, 관념은 이 변수를 규정하는 방식에 대응한다. 예를 들어, '내가 바닥을 더럽히는 사람이다'라는 진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두 개념 x 와 y 가 존재하는데 x 는 '나'라는 표현의 의미론적 역할을 가지고 y 는 '바닥을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의 의미론적 역할을 가진다. '나'의 의미론적 역할은 재귀적 지시어론에서와 같이 규정된다.

10. 의미론은 멈추어야 할 지점은 어디인가?

이제 이전의 논점들이 '정신적 파일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페리의 새로운 이론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우선 첫째로, 직접 지시이론과 정신적 파일 이론은 적어도 양립가능한 것 같다. 믿음이 무엇에 관한 믿음이 되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술구가 그 대상을 만족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신적 파일 또는 개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둘째, 웨트스타인의 반론을 피할 수 있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두 개의 개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기차가 저 기차인지를 궁금해 하는 것이 이상할 필요가 없다. 셋째, 개념은 상실되지 않았을 뿐 여전히 믿음의 구성요소이다. 개념은 존재양화사로 구속된 변수로 나타나고, 이름이 주어질 수도 있고 표식이 부여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이름도 아니고 표식도 아니다. 개념은, 인간 행위에 대해서 인과적 힘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인식적 개별자이다. 넷째, 재귀적 지시이론 역시 정신적 파일이론과 양립가능하다. 앞서 보았듯, 또 하나의 인식적 개별자인 관념이 가진 의미론적 역할을 설명하는데 페리는 재귀적 지시 이론을 끌어들이고 있다 (Perry 1989: 255-256). 마지막으로, 지속적 믿음을 갖는 것은 동일한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다. 개념 또는 정신적 파일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관념 또는 정신적 파일 속에 있는 정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보아왔던 페리의 여러 이론들이 정신적 파일이론 속에서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 이론은 페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과 결정적으로 부조화를 일으키는 것 같다. 돌이켜 생각해보자. 페리는 발화의 인식적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의미론적 작업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식적 구조물인 개념과 관념에 의존하는 것은, 의미론에게서 기대하는 중요한 역할의 하나, 즉 인식적 중요성을 설명하는 역할을 오히려 의미론으로부터 제거하는 셈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필자가 보기에 의미론적 토대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페리의 정신적 파일이론은, 이전에 그가 제시한 이론과는 잘 융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접근방식에 뿌리내리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정신적 파일을 끌어들이어 인식적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에 순환적 고리가 존재

한다는 점이다. '어떤 발화가 왜 인식적 중요성을 가지는가?'라고 묻고, '다른 정신적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답한다. '그렇다면 왜 이 두 파일은 다른가?'라고 물으면, '인식적 중요성에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답한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페리는 정신적 파일을 상정해야 하는 좀 더 독립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의미론적 토대주의를 버린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페리가 제시하는 정신적 파일이론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있다. 우선 가능한 선택지는 의미론적 토대주의를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다. 이를 부정하는 한 방법은 의미론적인 것을 인식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물론 페리는 이를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의미론적 토대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즉, 의미론적인 것과 인식적인 것이 이론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표성이 갖는 두 측면을 하나의 이론적 틀 속에서 모두 다루려고 했던 페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두 측면을 연결하는 이론이 아니라 이 두 측면을 한 지평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이론이라는 점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의미론적인 것과 인식적인 것이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페리에 동의하지만, 이 양자가 서로 명확한 영역을 가지고 서로간의 유의미한 연결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멀리서 보면 의미론적인 것과 인식적인 것은 서로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경계는 흐려지고 지워져 희미하다. 결국 두 영역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 많지 않아 보인다.

참고문헌

- Evans, G. 1985 Understanding Demonstratives. In his *Collected Papers*. 291-32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eprinted in *Demonstratives*. ed. P. Yourgrau. 1990: 72-9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age numbers follow Yourgrau.)
- Fodor, J. A. 1987 *Psychosemantics: The Problem of Meaning in the Philosophy of Mind*. Cambridge: MIT Press.
- Kaplan, D. Demonstratives. In *Themes from Kaplan*. ed. J. Almog, J. Perry, and H. Wettstein 1989. 481-56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ipke, S. 1980. *Naming and Necess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ozick, R. 1981. *Philosophical Explan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erry, J. 1977. Frege on Demonstratives. In Perry 1993. Reprinted in *Demonstratives*. ed. P. Yourgrau. 1990: 50-7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age numbers follow Yourgrau.)
- Perry, J. 1979. The Problem of the Essential Indexical. In Perry 1993.
- Perry, J. 1980. A Problem About Continued Belief. In Perry 1993.
- Perry, J. 1986. Thought Without Representation. In Perry 1993.
- Perry, J. 1988. Cognitive Significance and New Theories of Reference. In Perry 1993.
- Perry, J. 1989. The Prince and the Phone Booth: Reporting Puzzling Beliefs (with Mark Crimmins). In Perry 1993.
- Perry, J. 1990. Individuals in Informational and Intentional

- Content. In Perry 1993.
- Perry, J. 1993. *The Problems of the Essential Indexical and Other Essay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rry, J. 1997a. Indexicals and Demonstratives. In *A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B. Hale and C. Wright, 586-612. Oxford: Blackwell.
- Perry, J. 1997b. Reflexivity, Indexicality, and Names. In *Direct Reference, Indexicality, and Propositional Attitudes*, ed. W. Kunne, A. Newen, and M. Andushus, 3-19. Stanford: CSLI.
- Reichenbach, H. 1947. *Elements of Symbolic Logic*. New York: Free Press.
- Stalnaker, R. 1991. How to Do Semantics for the Language of Thought. In *Meaning in Mind: Fodor and His Critics*, ed. B. Loewer and G. Rey, 229-237. Oxford: Blackwell.
- Wettstein, H. 1991. *Has Semantics Rested on a Mistake? And Other Essay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